



오늘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24

오늘의 주요 기사

- | | | | | | |
|---|-------------|---|------------|---|------------|
| 2 | 항존직 / 피택자교육 | 4 | 꿈꾸는3막 | 6 | 어와나교사영성수련회 |
| 3 | 유아숲교사힐링데이 | 5 | 외국인유학생문화체험 | 7 | 십자말풀이 |
| 3 | 청년부 국내성지순례 | 6 | 정신청소년포럼 | 8 | 공동체소식 |

긴 시간의 수고와 기다림 끝에 수능시험을 마친 모든 수험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에는 수많은 기도와 격려, 그리고 눈물과 헌신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모든 시간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의 땀방울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종종 공부를 인간의 노력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와 그의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_ 잠언 2장 6절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일반은총’(common grace) 안에 있습니다.
수학의 질서, 과학의 법칙, 문학의 아름다움, 역사의 흐름까지
—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드러내는 또 다른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학문을 탐구하는 일 또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이해하고 그분의 지혜를 배우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 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_ 욥기 28장 23~28절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특별은총’,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진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높은 점수나 명문대학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걷는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적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진리와 사랑 안에서 자라가길 원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길 앞에 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배우며, 누구를 위해 지혜를 구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과 믿음을 함께 세워가는 사람,
학문 속에서 창조주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성취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으로 사람을 세우십니다.
입시의 결과가 어떠하든,
그 결과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시며,
여러분의 걸음을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의 교과서가 되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학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 속에서 세상을 섬기는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피택자교육

섬김으로 세워지는 직분

장로교회에는 '항존직(恒存職)'이라 부르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입니다. '항존직'이란 말 그대로 항상 존재하는 직분, 즉 교회의 시대와 상황이 변하여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맡기신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사역의 직분을 뜻합니다. 이는 인간의 직업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르심이며,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장로 - 말씀과 치리로 교회를 돌보는 직분

장로교 헌법은 장로의 직무를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하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고 규정하며 자격으로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장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이자 목양자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라고 기록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2절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라고 권면합니다. 따라서 장로의 권위는 지위나 연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섬김의 삶에서 나옵니다. 장로는 교회를 대표하고 인도하지만, 그 본질은 목자의 마음으로 돌보고 격려하는 영적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안수집사 - 봉사와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는 직분

헌법은 안수집사의 직무를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직분의 기원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급성장하면서 구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세워 봉사의 일을 맡겼습니다(행 6:3~6). 이것이 바로 집사의 기원입니다.

집사는 행정과 구제, 봉사의 현장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손과 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들의 수고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귀한 섬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각각은 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즉, 안수집사는 청지기 정신으로 교회를 세우는 실천적 제자입니다.

권사 - 기도와 사랑으로 교회를 품는 직분

헌법은 권사의 자격으로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 규정하고 그 직무로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고 명시합니다. 성경에는 '권사'라는 직명이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디도서 2장 3~5절에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라는 말씀에서 그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권사는 눈에 보이는 사역보다 무릎으로 섬기는 사역자입니다. 예배와 중보기도로 교회를 지탱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모범을 보이며, 사랑과 겸손으로 교회의 따뜻한 품을 이루는 직분입니다.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항존직의 본질

이 세 직분은 모두 교회의 서열이 아니라 서로 다른 형태의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마태복음 20:26)고 하신 말씀처럼, 항존직은 권위가 아니라 책임, 명예가 아니라 봉사, 지위가 아니라 헌신의 자리입니다.

임직을 사모하는 사람은 명예나 위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려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 이미 임직한 자는 처음 직분을 받던 날의 눈물과 서약을 잊지 않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겸손히, 더 기도하며,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요한계시록 2장 4절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항존직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마 25:21)으로 서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직분의 이름보다 섬김의 본질을 붙들며,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글함글

피택자교육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섬김의 일꾼들

2025년 피택자 교육이 지난 5월 24일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하여, 11월 14~15일 피택자 수련회를 끝으로 은혜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6시 30분, 찬양으로 예배를 열고 담임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말씀을 배우며, 모든 피택자들이 각자의 삶을 나누는 큐티 모임으로 풍성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새벽기도를 지키며, 매일 큐티와 독서를 통해 신앙의 근력을 세우는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피택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직분자로서의 마음과 자세를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11월의 1박 수련회에서는 그동안의 교육 여정을 돌아보며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고, 임직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직분을 권위나 서열이 아닌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받아들이며,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30일 주일 4부 예배에 있을 임직식을 앞두고, 모든 피택자들이 끝까지 겸손과 순종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박정민 전도사 / 8교구, 소그룹

유아숲
교사힐링데이

섬김에 감사와 쉼을 누리는 시간

지난 10월 26일(주일) 오후 12시 40분, 신축체육관 유치부실에서 유아숲 교사들을 위한 ‘교사 힐링데이’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유아숲(유아숲 1부, 아기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아기정원, 어와나 커비스)에서 섬기고 있는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하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유아숲1부와 영아부를 담당하는 이영선 목사의 사회로 교사들이 함께 웃고 소통할 수 있는 간단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따뜻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특히 오랜 기간 유아숲 사역에 헌신한 교사들에게는 근속 감사장이 수여되었다. 10년 근속 교사로는 아기부 좌봉준 교사, 영아부 정지영 교사와 신현정 교사가, 15년 근속 교사로는 유치부 김성일 교사와 최원정

교사가, 그리고 20년 근속 교사로는 유아부 이세진 교사가 감사의 마음과 함께 감사장을 받았다.



이날 참석한 교사들은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았다”며 서로를 격려했고, 교역자들과 부장단은 “지속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다음세대를 세워가는 교사들이 교회의 귀한 보배”임을 전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힐링데이는 오랜 시간 사랑으로 섬겨온 교사들에게 쉼과 격려를 전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유아숲 사역의 공동체적 따뜻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함줄함울



청년부
국내 성지순례

청년순례: 은혜로울 ‘지도’

지난 11월 8일(토), 주님의교회 청년부 조이힐이 주관한 국내 성지순례 행사가 서울 은평구 진관1로 94에 위치한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개관 기념으로 26년 2월 12일까지 입장료 무료이며, 홈페이지에서 도슨트 예약도 가능)



청년순례: 은혜로울 ‘지도’라는 이번 행사는, 신앙의 역사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찾고,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한 청년들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을 관람하며, 한국교회가 걸어온 신앙의 여정과 민족사 속에서 복음이 남긴 흔적들을 직접 확인했다. 상설전시 「신앙이 아름다웠던 순간들」은 선교 초기의 헌신, 일제강점기 민족운동과 신앙의 결단, 해방 이후 민주화운동과 사회선교 등 다양한 시대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 온 사명을 조명하고 있었다. 청년들은 전시된 역사 자료와 인터랙티브 영상, 선교사들의 일기와 편지 등을 통해 신앙이 단지 개인의 경건을 넘어 사회와 이웃을 향한 실천으로 확장되어 왔음을 체감했다.



이어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 ‘나눔의 시간’에서는 전시를 통해 느낀 점과 오늘날 청년 세대의 신앙적 책임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다. 참가자들은 “역사를 통해 신앙의 본질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우리 세대가 이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이 있음을 느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도전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순례는 단순한 관람을 넘어, 신앙의 뿌리를 기억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대 간 신앙의 전승을 이어가는,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결단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청년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사 허락하신 복음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믿음의 방향과 사명을 세워가는 여정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부

꿈꾸는3막
수료

인생 3막을 디자인하다: 꿈꾸는 시니어들

올 한 해 동안의 긴 여정에 우리와 함께하시며 큰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며 섬기신 두 분의 목사님과 스태프분들, 그리고 리더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수료식이지만, 이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노년을 의미 있고 활력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시작한 ‘꿈꾸는 3막’의 여정을 마치신 모든 분들께 뜨거운 박수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꿈꾸는 3막’의 여정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곧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용기 있는 모험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1막, 2막, 3막으로 나누지만, 진정한 의미의 ‘제3막’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꿈꾸는 3막’의 모든 수강생께서는 그 3막을 수동적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디자인하고 설계하셨습니다. 함께 수업을 들었던 동기들과의 관계는 이제 여러분의 ‘3막’을 지탱해 줄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는 이 소중한 인연들을 계속해서 아끼고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산상수훈에 여덟 가지 복이 있는 것처럼, ‘꿈꾸는 3막’에는 여섯 가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꿈꾸는 3막’을 수료함으로써 여섯 가지 복을 더하셨습니다. 그 여섯 가지 복을 나누며 축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꿈꾸는 3막 수훈

주님의교회 시니어들이

노년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보내고자 하매,
목사님이 기도하며 준비하여 ‘꿈꾸는 3막’을 펼치니
시니어들이 모이니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스태프들과
듣기를 즐겨 하는 리더들이 함께하니라.

비전을 품은 시니어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젊어질 것임이요.
영성이 풍부한 시니어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마음이 깨끗할 것임이요.
지성을 겸비한 시니어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겸손할 것임이요.
관계를 중히 여기는 시니어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외롭지 않을 것임이요.
영향력을 끼치는 시니어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존경을 받을 것임이요.
건강한 시니어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신감을 얻을 것임이라.

시니어는 교회의 어른이니,
만일 교회에 어른이 없으면 그 교회를 누가 돌보겠는가.
또 시니어는 교회의 주추이니,
만일 그 주추가 흔들리면 교회가 어떻게 버티겠는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교회를 흔들지라도,
주추가 든든하면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시니어들이 비전과 영성과 지성과 관계와 영향력과 건강을
균형 있게 갖추어 든든하여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니 그들이 온전하여지니라.

이와 같이 주님의교회 시니어들이 ‘꿈꾸는 3막’을 모두 마치고,
그들의 삶에 활기가 넘치니 교인들이 놀라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시니어는 힘과 기력이 쇠하니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며 시니어를 멀리하지 아니하며,
또 누구든지 “나는 시니어이니 사양하겠다” 하며
뒤로 물러나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꿈꾸는 3막’이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의 황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기운 장로

해외선교위원회
외국인유학생 문화체험

주님의교회로 이끈 첫 사역 현장에서

10년 넘게 다니던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제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결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주님의교회 문을 열고 들어섰던 그 날, 말 한마디 나누기 전, 찬양 한 곡 시작되기 전, 공기처럼 부드럽게 감싸오던 따뜻함과 평안이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새신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마음을 써주신 담임목사님, 예배당을 찾기 위해 서성이고 있던 제게 먼저 말을 걸어주신 주차 봉사 장로님의 환한 미소, 주보를 보고 외국인유학생선교부 봉사를 신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정보를 주시고 도와주신 부장집사님의 다정함. 그 인연으로 면접까지 보게 되었고, 신입 교사로서 연수를 받는 동안 느꼈던 열정과 배려, 사랑이 넘치는 교육.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순간이 한 문장처럼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래, 잘 왔구나! 여기서 사역까지 해보자!”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외국인유학생선교부에서 봉사하게 된 일 역시 제 계획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더 가까웠습니다. 사람들과 금세 친숙해지는 성격도 아니고, 선교에 자신 있는 편도 아니어서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역자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미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모습을 보며 저는 말보다 뒷모습으로 전해지는 복음을 배웠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떼어 준비하며, 웃음으로 마음을 열어주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섬김 가운데 머물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선교한다는 것은 크고 거

창한 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뒷모습’이라는 것일요.

10월 25일 토요일. 잔뜩 흐리고 쌀쌀한 가을 날씨가 무색하게, 강남역에 하나둘 모여들던 외국인 유학생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전네는 인사들이 오히려 더 솔직했고, 더 따뜻했습니다.

함께 음식을 배우고 만들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웃음이 테이블 위에 천천히 피어날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언어도, 문화도, 살아온 길도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는 모두 같은 자녀라는 것을. 그날의 웃음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누군가가 ‘환영받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환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 다가가신다는 것일요. 그 날 저는 ‘봉사를 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시간을 선물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한 소절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앞모습이 아닌 뒷모습으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우리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또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에 함께했던 외국인 친구들에게 이 찬양의 한 소절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How we yearn to learn the depth of His love,
The love of our Creator.

김소영 성도



청소년사역원
정신청소년포럼특강

AI로 열어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

정신여자고등학교는 지난 11월 10일(월) 김마리아회관 대강당에서 정신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김용환 교수(현 공과대학장, ERC 센터장)를 초청해 ‘AI를 이용한 효소 단백질 설계 및 이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제18회 정신 청소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 김 교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효소 설계의 최신 연구 동향과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 및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소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이 미래 환경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방윤주 목사 / 청소년수

방윤주 목사 / 청소년숲



어와나
교사영성수련회

복음이 열쇠입니다

지난 10월 24일(금)부터 25일(토)까지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리조트에서 열린 '제19차 어와나 교사 영성수련회'에 우리 교회 어와나 교사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수련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약 1,400여 명의 교사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복음이 열쇠입니다”(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5장 1절)를 주제로 복음의 본질을 되새기고 교사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번 집회는 더사랑의교회 이인호 담임목사가 강사로 섬기며, 첫째 날 저녁에는 ‘부르심’(누가복음 5:1~11), 둘째 날 오전에는 ‘기도’(역대하 14:6~7)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교사들은 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해 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고, 복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새롭게 다짐했다.

또한 이번 수련회에서는 어와나 브릿지(Awana Bridge) 선교사 사역 보고(태국·파라과이)와 찬양 콘서트(아이빅 밴드), 기도회, 근속교사 표창 및 봉사자 임명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교사와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공동체의 기쁨을 나누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에서는 우리 교회 어와나 티앤티(T&T, 초3~초6) 부서의 강춘경 교사가 20년 근속교사상을 수상하였다. 강 교사는 지난 20

년간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이끌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참석한 우리 교회 교사들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복음이 모든 사역의 중심임을 다시 깨달았다”라며, “아이들에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 어와나 이종국 대표는 “하나님께서 어와나 사역을 통해 전국의 교회와 교사들을 사용하심을 볼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며, “이번 영성수련회를 통해 교사들이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고, 각 교회 현장에서 믿음의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흥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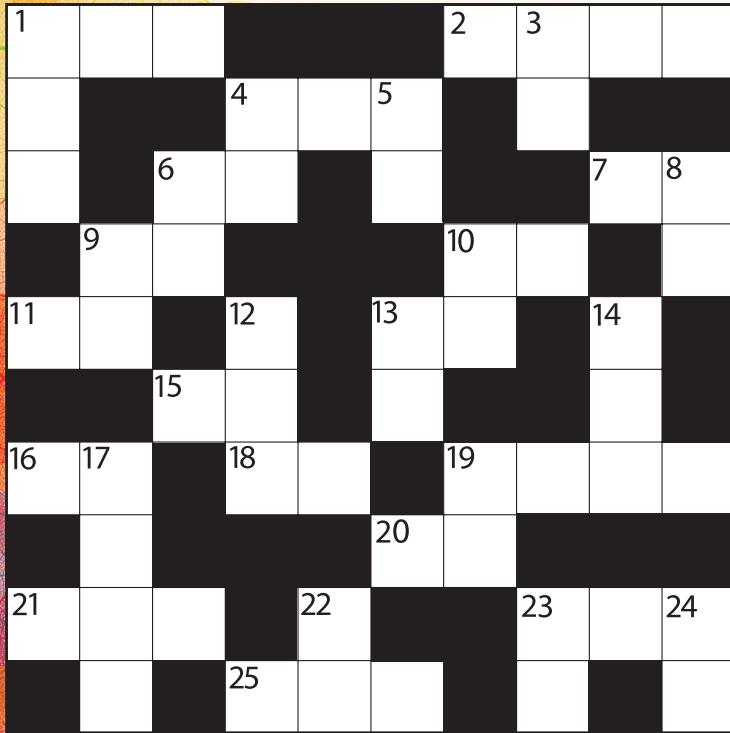
한국 어와나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어린이·청소년이 믿음의 세대로 성장하도록 전국 420여 개의 교회와 함께 활발히 사역 중이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교회 어와나 교사들은 ‘복음이 열쇠’임을 마음 깊이 새기며,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사역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어원일 안수집사 / 어와나 트렌

어진원 안수집사 / 어와나 트렉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 풀이
갈라디아서 편

이번 호는 신약의 아홉 번째 권인 <갈라디아서> 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움 속에 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로, 서기 55년 무렵 씌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고린도후서 편 정답



가로 힌트

- 무엇과 무엇, 누구와 누구, 어떤 일과 다른 일이 함께 하는 것을 뜻하는 순우리말. (갈 1:2)
-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적 존재를 믿는 것.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 금지하셨다. (갈 5:20)
-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소명을 받은 산. 이후 이스라엘 민족의 성지가 되었다. (갈 4:24)
- 민족적, 종교적으로 지키는 명절. 기독교에는 유월절과 무교절 같은 절기가 있다. (갈 4:10)
- 마땅히 해야 할 일. 대체로 소속된 집단에서 맡은 위상이나 직책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갈 5:3)
- 같은 부모 슬하에 있는 남자 동기. 여자의 경우 '자매'라고 한다. (갈 4:28)
-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 요즘은 하나님의 백성 스스로 하나의 교회임을 자임하기도 한다. (갈 1:22)
- 어떤 사람을 낳은 뒤 세대의 어른들을 두루 부르는 말. (갈 1:14)
-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존재. 대개 흰 옷을 입고 날개가 달린 것으로 묘사된다. (갈 4:14)
- 큰 땅을 나누었을 때 어딘가에 속하는 각각의 지역. 두루 관습적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갈 1:21)
- 아브람의 부인 사래의 여종. 이후 번성한 이 여인의 후손들도 두루 이 이름으로 불렸다. (갈 4:24)
- 어딘가로 이끌어가는 것. 사람들이 다니도록 구분한 길을 뜻하기도 한다. 같은 이름의 나라도 있다. (갈 3:24)
- 사적인 의미로, 공적이지 않은 목적이나 의도로 행해지는 어떤 것을 뜻한다. (갈 2:2)
- 바울의 동역자.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한 바울과 동행했다. (갈 2:3)
- 소아시아에 있던 고대 도시.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식민지의 주요 도시였으며, 이곳에 바울에 의한 최초의 교회가 있었다. (갈 2:11)
- 고대 아람 왕국의 후예로 후에 로마의 속주가 되었던 지역. 유대도 이 지역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갈 1:21)
- 왕과 같은 부유한 집의 재산이나 업무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 성경에는 다양한 책무를 맡은 일꾼의 비유로 쓰였다. (갈 4:2)

세로 힌트

- 그런데다가 더. 어떤 정도에 무엇인가 더한 사정이 있다는 의미로 쓴다. (갈 4:9)
- 서로 관계가 있음을 뜻하는 말. 어떤 조직에서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 (갈 2:6)
-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언짢게 생각함. (갈 5:20)
- 아이를 낳을 때 산모가 느끼는 고통. 또는 그와 같이 어떤 일을 성사시키는 데 필요한 고난을 비유적으로 뜻하기도 한다. (갈 4:27)
- 무리하지 않고 정도에 맞게 조절하는 것. 넘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잘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갈 5:23)
-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때, 큰 원리와 전통에 의해 생각해볼 때. (갈 3:10)
- 어떤 것의 모양이나 상태. 대체로 외양을 뜻한다. (갈 4:19)
-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교과 내용뿐 아니라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는 점에서 높이 존경받는다. (갈 3:24)
- 어떤 지역적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카뮈의 작품 이름이기도 하다. (갈 2:8)
- 생각이나 행동에 깊이가 없고 상스러운, 재물이나 학력 수준과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며 행동하는 경우를 대개 이렇게 묘사한다. (갈 4:9)
-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 예수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 닭 울기 전 세번 부인한 일로 유명하다. (갈 2:7)
- 소아시아 중앙에 있는 지역. 바울은 로마의 속주였던 이곳으로 전도 여행을 했다. (갈 1:2)
-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렇게 불렸다. (갈 2:8)
-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함. (갈 5:23)
-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 힘을 들이거나 애를 씀. 어떤 일을 마친 사람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많이 쓰는 말이다. (갈 4:11)
- 위의 반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의 반대편을 가리킬 때 쓴다. (갈 3:10)

